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가예산 최다 확보 '정조준'

전북도-도내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서 전략 논의 송 지사 "도 핵심사업 반영·현안 입법 힘 모아달라"

본격적인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송 지사가 지난 22일 예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갖고, 대응 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대며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정조준했다.

중 화상회의로 진행된 협의회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도 지휘부 실·국장이 참석해 국회단체 대응 전략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산업지도 대개조를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민과 함께, 전북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가꾸고 그려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동력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입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산업지도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사업 25건의 반영과 함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 과제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삼임위·예결위에서 신규·중액 반영시킬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과 의원별 역할 분담을 논의하고, 신산업지도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 25건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산업 분야에는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의 증액 반영을 요청했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에 구축하는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의 예산 반영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공정혁신 시물레이션센터의 신규 반영과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과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증액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단체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농생명산업 분야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사업과 농업 기후변화대응 교육 기반 구축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고창·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의 국비 반영과, 전주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조성, 호·영남 가야사찰 한지라에서 볼 수 있는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비를 조성 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새만금·SOC 분야에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북 국회의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 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예타분과와 기본계획 수립비와 새만금 잠바리 용지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사업 설계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전북도 16개 구간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비, 고창갯벌과 염전을 연계한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과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비 반영도 적극 건의했다.

환경·복지·안전 분야에는 새만금 수집개선 및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사업비로 118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에서는 혁신도시에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국회에서 장기 표류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과 함께,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계 지원 개성, '강소도시권 교통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안 마련에도 힘이 돼주길 부탁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사 일정에 촉각을 세우며 지역·연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탄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25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상임위 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연고 국회의원 대상으로 상임위·지역구별 정책질의서를 제공해 상임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송 지사 주재로 서울에서 전북 연고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의원별 사업 전담 등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호성 기자



육상트랙 2관왕 달성
가법촬영을 하고 있다.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해 육상트랙에서 2관왕을 차지한 임진홍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정은성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앞으로 농업·농촌의 중요도가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대부분은 농촌진흥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된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개청 60주년을 앞두고 '농업·농촌과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0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농촌진흥사업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9월 3~15일까지 전국 소비자 1,000명과 농업인 300명 등 총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 77.4%와 농업인

국민 10명 중 8명 '미래농업·농촌 중요성 더 커질 것'

소비자 77.4%·농업인 85%가 인식 안전 먹거리·신제품 개발기술에 높은 관심

85.0%가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도가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65.5%는 농업·농촌에 관심이 있고, 68.2%는 애착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농업·농촌이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7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국민들이 미래 농업·농촌에 거는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진청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소비자(76.0%)와 농업인(82.8%) 대부분이 농촌진흥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농진청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는 84.7%, 농업인은 84.1%를 차지해 농촌진흥청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평소 생활 속에서 농업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농업인 98.2%, 소비자 86.7%가 앞으로 농업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업기술을 직접 접하고 있는 농업인 55.0%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농업기술 능력이 세계 수준(100점) 대비 80점 이상이라고 답해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수준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농진청이 개발한 농업기술 중 '소비자와 농업인이 뽑은 10대 농업기술'을 알아본 결과,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된 기술을 높게 평가했고, 농업인들은 신제품 개발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소비자들이 뽑은 10대 농업기술로는 ▲다양한 맛과 모양을 즐길 수 있는 국산 딸기 개발 ▲유전자 분석 기술을 활용한 '수입 농축산물 국산

둔갑 원천 차단 기술 ▲세계 각지로 부터 수집한 종자 26만여 점을 새로운 품종 및 기능성물질 개발 등에 활용하는 '세계 5위 농업유전자원 보존 관리기술' 등이 있다.

이밖에 ▲사시사철 신선 채소 생산 ▲환경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국산 농산물 생산 ▲쌀 생산량 조기 예측 ▲최고 품질 쌀 생산 ▲바이오 장기 생산 ▲축산물 등급기준 설정 ▲농산물의 건강 기능성 소재 개발 기술이 소비자들 뽑은 10대 농업기술에 포함됐다.

농업인이 뽑은 10대 농업기술은 ▲국산 품종 점유율 99%를 이룬 국산 딸기 품종 개발 ▲쌀 자급자족을 넘

어 다양한 용도의 쌀을 생산하는 '쌀 품종 개발 기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씨수수 산발기술'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디지털 농업기술 ▲발효농업 기계화 ▲감소농 육성 ▲과수 재배기술 ▲양봉산업 활성화 기술 ▲지역농업 활성화 ▲두류 품종 개발 등이 농업인이 뽑은 10대 농업기술에 들어갔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난 60년간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해온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혁신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흥부제전위원회

제29회 흥부제

흥부가 선물하는 건강과 대박 행운을 만나자!

건강연고, 대박연고! 흥부대박길 걸기 챌린지

흥부대박길을 걷고 미션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대박행운이 가득한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2021. 11. 6.(토) ~ 11. 30.(화)
걸기코스 흥부대박길(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381-13)
참여방법 미션 수행시 자동 참여

1. 워크온설치 및 로그인
2. 흥부대박길 걸기챌린지 가입
3. 미션 1 지정코스 걷기수행 (5.75km)
4. 미션 2 사진인증

경품내역

- 남원예촌 숙박 패키지 상품 6인실(80만원 상당) × 1명
- 전통 장인 옷칠 목기세트(50만원 상당) × 2명
- 남원예촌 숙박 패키지 상품 4인실(30만원 상당) × 3명
- 남원 농산물 또는 농산물가공식품세트(20만원 상당) × 20명
- 한복체험 화인당 이용권(5만원 상당) × 20명

행사문의 흥부제전위원회 063-620-5774